

논문접수일 : 2011.12.24

심사일 : 2012.01.05

게재확정일 : 2012.01.21

노년 여성의 팬티 구매 실태와 착용 만족도

Purchasing Practices and Wearing Satisfaction
of Panties for Elderly Women

주저자 : 석혜정

오산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전임강사

Seok hye-jung

Osan collage

공동저자 : 김상희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Kim sang-hee

Kyunghee university

* 본 연구는 2010년도 오산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노년 여성의 신체적 특성
- 2.2. 노년 여성을 위한 속옷 시장 현황

3. 연구 방법

- 3.1. 연구 문제
- 3.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 3.3. 측정 도구 및 자료 분석

4. 결과 및 고찰

- 4.1. 노년 여성의 팬티 구매 실태 조사
- 4.2. 노년 여성의 팬티 디자인 선호도 조사
- 4.3. 노년 여성의 팬티 착용감 및 기능성 만족도 조사

5. 결론 및 제한점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연구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노년 여성의 팬티 구매 실태, 품질과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노년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팬티 제품 설계 시 치수적합성 및 디자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 여성이 팬티 구매 시 고려하는 선택 기준으로는 소재, 맞음새, 봉제, 가격, 관리가 용이한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시판되고 있는 팬티 브랜드별 선호도는 'B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느질 상태가 좋다'라고 하였다.

셋째, 노년 여성이 선호하는 소재로는 면 100%이며 선호하는 색상은 베이지, 흰색, 분홍색 순으로 나타났다. 팬티 허리선 형태는 표준형을 선호하였고, 엉덩이선 형태와 앞가랑이선 형태는 맥시라인을 가장 선호하였다.

넷째, 노년 여성이 현재 착용중인 팬티의 불편 부위로는 앞가랑이선, 배부위였다.

주제어

노년 여성, 팬티, 구매 실태, 착용만족도, 맞음새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elderly women's purchasing practices of panties currently being distributed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and fit. It aimed thereby at improving the measure fitness and design satisfaction at the time of developing pantie products, in consideration of physical features of elderly wome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election criteria elderly women consider at the time of purchasing panties were shown to be in the order of materials, fit, sewing, price, and the ease of maintenance.

Second, among the panties currently available in the market, the brand preference of 'B company' was the highest, the reason for which was 'good stitching.'

Third, the material favored by elderly women was 100% cotton, and their favored colors were in the order of beige, white, and pink. The standard type was favored as the shape of pantie waist line, and maxi line was most favored as the shapes of buttock line and front crotch line.

Fourth, the discomfort parts of the panties currently worn by elderly women were front crotch line and abdomen part.

Key Words

elderly women, panties, purchasing practices, wearing satisfaction, fit preference

1. 서론

현대사회는 경제 성장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가져왔다. 향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20.8%가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주택, 건강, 안전, 생활용품, 교육,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류분야에서도 노인들은 자신의 체형에 적합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의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변화된 체형을 보완하려는 욕구가 증가하여 체형 보정을 위한 의류 보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이후에 노인 여성들을 위한 전문 의류매장이 몇몇 백화점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섬유산업연합회가 발표한 2004년 1-3분기 의류소비실태조사에 의하면 실버복은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1,960억 원의 시장 규모를 보였다. 이처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 산업 곧 실버산업의 규모는 점점 더 확대되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노인을 위한 의복은 심미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노인 특유의 체취와 땀 배출, 건조한 피부 등을 감안한 소재의 사용이 필요하며 건강의 증진을 도울 수 있는 기능성과 신체의 노화를 시각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몸에 잘 맞고 쾌적하고 보기 좋은 고령 친화 의류는 노년층의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립과 기능 유지, 노화 장애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의류 연구 분야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노년층을 이해하고 다각화 되어가는 변화들에 대비하여 노년층의 신체 변화를 고려한 치수에 대한 연구, 소재, 착용 형태, 착용 방법, 색채, 디자인 연구(석혜정, 한승희, 2010; 이소영, 2004; 이영주, 김점해, 2007; 장안화, 2005; 정삼호, 2009)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노년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언더웨어 연구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내의류를 포함한 의류의 평가기준, 소재에 따른 착용감, 상표충성도 등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영희, 정삼호, 2008; 이효진, 김주연, 2005; 이효진, 김진, 2007a, 2007b)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팬티 제품 설계 시 맞음새 및 디자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노년 여성의 팬티 구매 실태, 품질과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노년 여성을 위한 팬티 원형 제작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노년 여성의 신체적 특성

노년 여성은 중년 여성에 비해 허리가 굽어져 허리선이 없어지고 몸의 지방은 신체의 아랫부분으로 옮겨져 배와 엉덩이 둘레 항목의 치수가 커지며 키와 몸무게가 감소하며 어깨와 엉덩이가 처진다. 또한 등 굽음, 배와 엉덩이 부분의 비대, 유방의 처짐, 사지가 가늘어지는 현상, 근육 및 각 기관과 피부의 약화 현상 등의 체형의 변화와 생리적 변화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유희숙, 1999).

특히 노년 여성은 방광과 요도괄약근의 조절 기능 장애로 방광 내 압력이 최대 요도 저항을 초과하여 요의 불수의적인 배출이 일어나는 요실금 현상이 나타난다. 국내 60세 이상 노인 여성 중에서 62.2%가 요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조진숙, 최진희, 허은영, 2001)

이상과 같이 노년 여성은 신체적, 생리적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에 사용되어 온 팬티 패턴을 사용하거나,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정된 치수 체계를 적용한 제품을 이용할 경우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이효진, 김진, 2007a).

속옷은 피부와 가장 밀착되어 있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아이템으로 신체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노인의 경우는 더욱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년 여성을 위한 팬티 제품 설계 시 맞음새와 디자인 만족도가 높은 팬티의 개발을 위해 노년층의 체형과 신체적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팬티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2 노년 여성을 위한 속옷 시장 현황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고령화 현상으로 실버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버 의류 브랜드는 부족한 현실이다.

노인의 의복 중 내의류는 신체에 직접 접촉하므로 내의류의 크기, 형태, 소재 등은 노년 여성의 생리적

인 면과 활동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 여성 내의류 중 팬티 시장은 양적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변화에 따른 노년 여성을 위한 체형별 적합한 팬티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이효진, 김진, 2007a).

최근 국내 여성용 팬티 시장은 란제리, 파운데이션 라인을 생산하는 신영, 남영, 트라이엠프인터네셔널, 좋은 사람들 등의 고기능성, 고가격, 장식성 위주의 업체와 메리야스 전문업체인 쌍방울, BYC 등의 실용성 위주의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내의류의 패션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한 생활필수품의 차원이 아닌 심미적인 만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호품으로서 내의를 찾게 되었으며 이중 팬티는 모든 사람이 항상 착용하는 내의의 일종으로 팬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이효진, 김주연, 2005). 그러나 사회의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년기 여성을 위한 소비자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비해 먼저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노년기 여성을 위해 사이즈 체계부터 연구가 되어 이미 실용화된 상품이 나오고 있으며, 백화점이나 할인점 매장에서 노년 여성을 위한 속옷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서영희, 정삼호, 2008).

앞으로 노년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년기 여성을 위한 속옷 시장 역시 구성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년기 여성을 위한 전문 속옷에 대한 연구와 상품화 그리고 접근이 쉬운 전문 매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문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년 여성의 팬티 구매 실태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노년 여성의 팬티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노년 여성의 팬티에 대한 착용감 및 기능성 만족도를 알아본다.

3.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노년 여성의 팬티의 구매 실태, 디자인 선호도, 착용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여성 중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동의한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과 서울 근교의 복지관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수업을 듣는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방법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일대일 면접으로, 연구자와 보조자가 직접 문제를 읽고 답변을 설문지에 체크하였다.

총 130부를 회수하여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하고 125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 과 같다.

연령은 60~83세 사이로 평균 나이는 64.98세였고, 키는 143.0cm~169.0cm로 평균 키는 156.71cm이고, 몸무게는 39.0~70.0kg으로 평균 몸무게는 54.86kg이었다.

항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나이(세)	60	83	64.98	4.66
키(cm)	143	169	156.71	4.73
몸무게(kg)	39	70	54.86	6.12

[표 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25)

3.3. 측정 도구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이효진, 김주연, 2005; 조진숙, 최진희, 허은영, 2001)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문항을 재인용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은 노년 여성의 팬티 구매 실태, 디자인 선호도, 착용감 및 인적 사항에 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4. 결과 및 고찰

4.1. 노년 여성의 팬티 구매 실태 조사

4.1.1. 팬티 구매 시 선택 기준

노년 여성이 팬티 구매 시 고려하는 선택 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측정도구는 '1:전혀 중요하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중요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선택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는 [표 2] 와 같다. 노년 여성이 팬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 기준으로는 소재(4.1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춤세

(4.06), 봉제(3.96), 가격(3.93), 관리가 용이한 점(3.9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브랜드, 유행 항목은 다른 선택 기준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여 팬티 구매 시 고려하는 선택 기준으로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특히 유행(2.62) 항목은 가장 낮은 값으로 보통이다의 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기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디자인	3.41	0.86	1.0	5.0
가격	3.93	0.70	2.0	5.0
브랜드	3.20	1.01	1.0	5.0
소재	4.18	0.76	2.0	5.0
맞음새	4.06	0.73	2.0	5.0
봉제	3.96	0.76	2.0	5.0
유행	2.62	1.08	1.0	5.0
오래 입을 수 있는 점	3.86	0.77	2.0	5.0
관리가 용이한 점	3.90	0.75	2.0	5.0

[표 2] 노년 여성의 팬티 구매 시 선택 기준

4.1.2. 팬티 구매 가격대 및 점포 형태

노년 여성이 팬티를 구입할 때 적절한 구입 가격대로는 43.2%가 5천원 이상에서 1만원 미만이라고 대답하였고, 5천원 미만도 39.0%의 높은 비율을 보여 1만원 미만의 가격대를 선호하였다 [표 3].

구매하는 점포 형태는 속옷전문점(41.4%), 할인점(25.6%), 재래시장(20.3%), 백화점(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가격대	빈도(명)	백분율(%)
5천원 미만	46	39.0
5천원 이상-1만원 미만	51	43.2
1만원 이상-2만원 미만	16	13.6
2만원 이상-3만원 미만	5	4.2
Total	118	100.0

[표 3] 노년 여성의 팬티 구매 시 가격대
(n=118 다중응답 가능)

4.1.3. 선호 브랜드 및 브랜드 선호 이유

팬티 브랜드별 선호도 및 그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점포형태	빈도(명)	백분율(%)
백화점	15	11.3
할인점(상설매장, 아울렛)	34	25.6
속옷전문점	55	41.4
재래시장	27	20.3
기 타	2	1.5
Total	133	100.0

[표 4] 노년 여성의 팬티 구매 시 점포형태
(n=133, 다중응답 가능)

선호브랜드는 브랜드 이름을 직접 쓰도록 했다.

팬티 구매 시 선호하는 브랜드는 'B사'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SS사'(24.2%), 'BB사'(9.7%), 'Y사'(9.7%), 'BN사'(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년기 여성들은 란제리나 파운데이션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BB사', 'BN사' 등의 제품보다 'B사', 'SS사'와 같은 내의 전문 업체의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이효진, 김주연의 연구(2005)와 일치하였다.

각 브랜드별 팬티 선호 이유를 살펴본 결과 'B사'는 '바느질 상태가 좋다'(26.9%)와 '소재가 좋다'(23.1%), '착용감이 좋다'(23.1%)의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SS사'는 '소재가 좋다'(33.3%)와 '가격이 적당하다'(30.0%), 'BB사'는 '소재가 좋다'(33.3%)와 '착용감이 좋다'(33.3%)의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Y사'의 경우는 '착용감이 좋다'의 비율이 50.0%를 차지해 타사보다 착용 시 편안함을 주는 신체 적합성이 우수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팬티 디자인 선호도 조사

4.2.1. 선호하는 소재 및 색상

노년 여성이 선호하는 소재로는 면 100%가 7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면과 신축성 소재 혼방(2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선호하는 팬티의 색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베이지(36.4%), 흰색(34.1%), 분홍색(15.9%)의 순으로 나타나, 흰색에 대한 선호도가 35.8%로 가장 높았다는 이효진, 김진(2007)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그 외 아이보리, 분홍, 베이지 순으로 색상이 진하지 않은 무난한 색상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7].

4.2.2. 선호하는 팬티 디자인 형태 및 선호 이유

브랜드	선호이유						Total
	바느질 상태가 좋다	소재가 좋다	착용감이 좋다	색상이 좋다	디자인이 좋다	가격이 적당하다.	
B사	14 26.9% 11.3%	12 23.1% 9.7%	12 23.1% 9.7%	3 5.8% 2.4%	2 3.8% 1.6%	9 17.3% 7.3%	52 100.0% 41.9%
SS사	6 20.0% 4.8%	10 33.3% 8.1%	3 10.0% 2.4%	2 6.7% 1.6%	0 0.0% 0.0%	9 30.0% 7.3%	30 100.0% 24.2%
BB사	0 0.0% 0.0%	4 33.3% 3.2%	4 33.3% 3.2%	0 0.0% 0.0%	2 16.7% 1.6%	2 16.7% 1.6%	12 100.0% 9.7%
Y사	1 8.3% 0.8%	4 33.3% 3.2%	6 50.0% 4.8%	0 0.0% 0.0%	1 8.3% 0.8%	0 0.0% 0.0%	12 100.0% 9.7%
BN사	0 0.0% 0.0%	2 25.0% 1.6%	3 37.5% 2.4%	0 0.0% 0.0%	2 25.0% 1.6%	1 12.5% 0.8%	8 100.0% 6.5%
T사	0 0.0% 0.0%	3 50.0% 2.4%	1 16.7% 0.8%	0 0.0% 0.0%	0 0.0% 0.0%	2 33.3% 1.6%	6 100.0% 4.8%
기타	1 25.0% 0.8%	0 0.0% 0.0%	1 25.0% 0.8%	0 0.0% 0.0%	0 0.0% 0.0%	2 50.0% 1.6%	4 100.0% 3.2%
합계	22 17.7%	35 28.2%	30 24.2%	5 4.0%	7 5.6%	25 20.2%	14 100.0%

[표 5] 노년 여성의 선호 팬티 브랜드 및 선호 이유

(한 셀 안의 숫자는 차례로 - 실제출현빈도, 행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전체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소 재	빈도(명)	백분율(%)
면 100%	95	75.4
면과 신축성 소재 혼방	28	22.2
레이온 라이크라	2	1.6
기 타	1	0.8
Total	126	100.0

[표 6] 노년 여성의 팬티 선호 소재

(n=126, 다중응답 가능)

색 상	빈도(명)	백분율(%)
흰색	45	34.1
하늘색	5	3.8
베이지	48	36.4
분홍색	21	15.9
기 타	13	9.8
Total	132	100.0

[표 7] 노년 여성의 팬티 선호 색상

(n=132, 다중응답 가능)

팬티 구매 시 선호하는 디자인 형태 및 그 디자인을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8] 과 같

다. 팬티 허리선의 선호하는 디자인 형태는 표준형이 69.7%로 가장 높았고, 커버형 25.0%, 노출형 5.3%의 순이었다.

표준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착용 시 안정감이 있어서', '착용 후 활동하기 편해서', '몸을 조이지 않아서'가 각각 32.6%, 29.3%, 23.9%로 나타났으며, 커버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착용 시 안정감이 있어서', '착용 후 활동하기 편해서'가 각각 36.4%, 24.2%로 나타났으며, 노출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입은 모양이 좋아서', '몸매를 보완해 주므로'가 각각 42.9%, 28.6%로 조사되었다. 표준형과 커버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거의 같았지만 노출형의 선호 이유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팬티 엉덩이선의 선호하는 디자인 형태는 맥시라인이 74.0%로 가장 높았고, 트렁크라인 13.7%, 미니라인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맥시라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착용 시 안정감이 있어서', '착용 후 활동하기 편해서', '몸을 조이지 않아서'가 각각 39.2%, 24.7%, 24.7%로 나타났고, 트렁크라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착용 후 활동하기 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미니라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50.0%가 '입은 모양이 좋아서'라고 하였다.

디자인 형태		선호하는 이유						Total
		몸을 조이지 않아서	입은 모양이 좋아서	몸매를 보완해 주므로	착용시 안정감이 있어서	착용 후 활동하기 편해서	보온성 때문에	
허리선 형태	커버형	5	5	0	12	8	3	33
		15.2%	15.2%	0.0%	36.4%	24.2%	9.1%	100.0%
	표준형	22	11	2	30	27	0	92
		23.9%	12.0%	2.2%	32.6%	29.3%	0.0%	100.0%
영덩이선 형태	노출형	0	3	2	1	1	0	7
		0.0%	42.9%	28.6%	14.3%	14.3%	0.0%	100.0%
	합계	27	19	4	43	36	3	132
		20.5%	14.4%	3.0%	32.6%	27.3%	2.3%	100.0%
앞가랑이 형태	미니라인	0	8	2	3	3	0	16
		0.0%	50.0%	12.5%	18.8%	18.8%	0.0%	100.0%
	맥시라인	24	10	1	38	24	0	97
		24.7%	10.3%	1.0%	39.2%	24.7%	0.0%	100.0%
트렁크라인	트렁크라인	2	1	1	2	9	3	18
		11.1%	5.6%	5.6%	11.1%	50.0%	16.7%	100.0%
	합계	26	19	4	43	36	3	131
		19.8%	14.5%	3.1%	32.8%	27.5%	2.3%	100.0%
앞가랑이 형태	미니라인	0	8	2	4	0	0	14
		0.0%	57.1%	14.3%	28.6%	0.0%	0.0%	100.0%
	맥시라인	20	10	1	32	27	0	90
		22.2%	11.1%	1.1%	35.6%	30.0%	0.0%	100.0%
트렁크라인	트렁크라인	5	1	1	5	6	3	21
		23.8%	4.8%	4.8%	23.8%	28.6%	14.3%	100.0%
	합계	25	19	4	41	33	3	125
		20.0%	15.2%	3.2%	32.8%	26.4%	2.4%	100.0%

[표 8] 노년 여성이 선호하는 팬티 디자인 형태 및 선호 이유

(허리선형태 n=132, 영덩이선 형태 n=131, 앞가랑이 형태 n=125, 다중응답 가능)

(한 셀 안의 숫자는 차례로 - 실제출현빈도, 행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전체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허리 밴드 형태	선호하는 이유				Total
	허리를 조이지 않아서	입은 모양이 좋아서	착용감이 좋아서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어서	
넓은 밴드	10	6	9	14	39
	25.6%	15.4%	23.1%	35.9%	100.0%
	7.9%	4.7%	7.1%	11.0%	30.7%
좁은 밴드	6	8	17	4	35
	17.1%	22.9%	48.6%	11.4%	100.0%
	4.7%	6.3%	13.4%	3.1%	27.6%
고무줄 밴드 형태	11	2	22	3	38
	28.9%	5.3%	57.9%	7.9%	100.0%
	8.7%	1.6%	17.3%	2.4%	29.9%
레이스 밴드 형태	4	5	6	0	15
	26.7%	33.3%	40.0%	0.0%	100.0%
	3.1%	3.9%	4.7%	0.0%	11.8%
합계	31	21	54	21	127
	24.4%	16.5%	42.5%	16.5%	100.0%

[표 9] 노년 여성이 선호하는 팬티 허리 밴드 형태 및 선호 이유

(n=127, 다중응답 가능)

(한 셀 안의 숫자는 차례로 - 실제출현빈도, 행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전체 인원수에 대한 백분율)

팬티 앞가랑이선의 선호하는 디자인 형태는 맥시라인이 72.0%로 가장 높았고, 트렁크라인 16.8%, 미니라인 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맥시라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착용 시 안정감이 있어서', '착용 후 활동하기 편해서', '몸을 조이지 않아서'가 각각 35.6%, 30.0%, 22.2%로 나타났으며, 트렁크라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착용 후 활동하기 편해서'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3.8%로 '착용 시 안정감이 있어서', '몸을 조이지 않아서'라고 하였다. 미니라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57.1%가 '입은 모양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선호하는 팬티 디자인은 착용할 때 안정감과 착용 후 활동성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3. 선호하는 팬티 허리밴드 형태 및 선호 이유

팬티 허리 밴드 형태의 선호도와 선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선호하는 팬티 허리 밴드의 형태는 넓은 밴드(30.7%), 고무줄을 끼어 넣는 밴드 형태(29.9%), 좁은 밴드(27.6%), 레이스 밴드 형태(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허리 밴드 형태별 선호 이유를 각각 살펴보면 넓은 밴드는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어서'가 35.9%, '허리를 조이지 않아서'가 25.6%, '착용감이 좋아서'가 23.1%로 나타났고, 고무줄을 끼어 넣는 밴드는 '착용감이 좋아서', '허리를 조이지 않아서'가 각각 57.9%, 28.9%로 나타났다. 좁은 밴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착용감이 좋아서', '입은 모양이 좋아서'가 각각 48.6%, 22.9%로 나타났고 레이스 밴드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착용감이 좋아서', '입은 모양이 좋아서', '허리를 조이지 않아서'로 각각 40.0%, 33.3%, 26.7%로 나타났다.

각 허리 밴드 형태별 선호 이유를 살펴보면 미적인 면이나 내구성보다는 팬티를 착용했을 때의 허리를 조이지 않는 것과 착용감이 가장 중요한 선호 이유로 조사되었다.

4.3. 노년 여성의 팬티 착용감 및 기능성 만족도 조사

4.3.1. 팬티 착용 시 불편한 부위

노년 여성의 현재 착용중인 팬티 착용감 및 맞음새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팬티 착용 시 불편한 부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10].

팬티 착용 시 불편한 부위로는 앞가랑이선(26.8%), 배부위(26.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엉덩이부위(24.1%), 허리둘레선부위(16.1%), 전체적인 앞길이(6.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불편한 부위	빈도(명)	백분율(%)
앞가랑이선	30	26.8
엉덩이부위	27	24.1
허리둘레선부위	18	16.1
배부위	30	26.8
앞길이(전체길이)	7	6.3
합계	112	100.0

[표 10] 노년 여성의 팬티 착용 시 불편한 부위

4.3.2 팬티 착용 시 착용감 및 기능성 만족도

노년 여성의 팬티 착용 시 착용감과 기능성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하였다.

측정도구는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과는 [표 11]과 같다.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신축성이 좋지 않다.	2.47	0.78	1.0	5.0
촉감이 좋지 않다.	2.33	0.69	1.0	4.0
가랑이 고무밴드가 조인다.	2.77	0.88	1.0	5.0
허리 고무 밴드가 조인다.	2.74	0.91	1.0	5.0
엉덩이를 충분히 감싸지 못한다.	2.61	0.90	1.0	4.0
배를 감싸지 못한다.	2.66	0.92	1.0	5.0
땀이나 분비물 흡수하지 못한다.	2.55	0.88	1.0	5.0
앉았다 일어나면 뒤흔리가 내려온다.	2.52	0.85	1.0	4.0
앉았다 일어나면 엉덩이의 고무 밴드 부분이 당겨 올라간다.	2.53	0.86	1.0	4.0

[표 11] 노년 여성의 팬티 착용 시 착용감 및 만족도

노년 여성은 팬티 착용 시 불만족한 사항으로 '가랑이 고무 밴드가 조인다', '허리 고무 밴드가 조인다', '배를 감싸지 못한다', '엉덩이를 충분히 감싸지 못한다'의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착용감이나 배와 엉덩이 부위의 커버력에 대한 불만족이 팬티 소재, 내구성에 대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높았다.

항 목	수척/정상 (79명)	비만 (46명)	t-value	60대 (106명)	70세 이상 (19명)	t-value
신축성이 좋지 않다.	2.34	2.70	-2.50*	2.49	2.37	0.63
촉감이 좋지 않다.	2.32	2.35	-0.24	2.27	2.63	-2.10*
가랑이 고무 밴드가 조인다.	2.65	2.98	-2.06*	2.76	2.79	-0.11
허리 고무 밴드가 조인다.	2.61	2.96	-2.10*	2.71	2.89	-0.83
엉덩이를 충분히 감싸지 못한다.	2.52	2.76	-1.46	2.62	2.53	0.43
배를 감싸지 못한다.	2.53	2.89	-2.13*	2.67	2.63	0.17
땀이나 분비물 흡수하지 못한다.	2.61	2.46	0.92	2.58	2.42	0.70
앉았다 일어나면 뒤흔리가 내려온다.	2.39	2.74	-2.24*	2.48	2.74	-0.90
앉았다 일어나면 엉덩이의 고무 밴드 부분이 당겨 올라간다.	2.42	2.72	-1.90	2.52	2.58	-0.22

[표 12] 체형/연령별 노년 여성의 팬티 착용 시 착용감 및 기능성 만족도 차이

(*p≤.05)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팬티 제품의 디자인과 치수가 노인의 체형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디자인이 제시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배와 엉덩이의 비만도가 높고 처지는 체형의 특징에 반해 사지부가 점점 더 가늘어지는 노년기 여성의 체형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효진, 김주연(200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착용감 및 기능성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높은 항목은 [표 10]의 불편한 부위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노인 여성의 체형을 고려한 팬티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착용감 및 기능성 만족도를 높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체형과 연령별 노년 여성의 팬티 착용 시 착용감 및 기능성의 만족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12].

체형의 구분은 신체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Rohrer 지수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Rohrer지수의 판정 기준은 선행연구(석혜정, 2010)에서 제시된 판정 기준으로 Rohrer 지수가 1.2미만은 수척, 1.2이상에서 1.5미만은 정상, 1.5이상은 비만으로 구분하여 분류한 결과 수척집단의 수가 4명으로 적어 수척 집단을 정상 집단에 포함시켜 수척/정상, 비만의 2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령의 구분은 70세를 기준으로 60대 집단과 70대 이상 집단으로 나누었다.

체형에 따른 노년 여성의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항목은 '신축성이 좋지 않다', '가랑이 고무 밴드가 조인다', '허리고무 밴드가 조인다', '배를 충분히 감싸지 못한다', '앉았다 일어나면 뒤흔리가 내려온다'의 5항목으로 비만 집단이 수척/정상 집단에 비해 불만족이 높았다.

연령에 따른 노년 여성의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항목은 '촉감이 좋지 않다' 항목만으로 70세 이상 집

단이 60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5. 결론 및 제한점

본 연구는 노년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팬티 제품 설계 시 치수적합성 및 디자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노년 여성의 팬티 구매 실태, 품질과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노년 여성을 위한 팬티 원형 제작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 여성이 팬티 구매 시 고려하는 선택기준으로는 소재, 맞음새, 봉제, 가격, 관리가 용이한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브랜드, 유행 항목은 다른 선택 기준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현재 시판되고 있는 팬티 브랜드별 선호도 및 선호 이유를 조사한 결과 'B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SS사', 'BB사', 'Y사', 'BN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년여성들은 란제리나 파운데이션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BB사', 'BN사' 등의 제품보다 'B사', 'SS사'와 같은 내의 전문 업체의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브랜드별 팬티 선호 이유를 살펴본 결과 'B사'는 '바느질 상태가 좋다', 'SS사'와 'BB사'는 '소재가 좋다'와 '착용감이 좋다'의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Y사'의 경우는 '착용감이 좋다'의 비율이 50.0%를 차지해 타사보다 착용 시 편안함을 주는 신체 적합성이 우수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노년 여성의 선호하는 소재로는 면 100%, 신축성 소재 혼방이며 베이지, 흰색, 분홍색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팬티 허리선 형태는 표준형, 커버형, 노출형의 순이며, 선호하는 엉덩이선 형태는

맥시라인, 트렁크라인, 미니라인의 순이며, 선호하는 앞가랑이선 형태로는 맥시라인, 트렁크라인, 미니라인 순으로 나타났다. 팬티 디자인 형태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착용 시 안정감과 활동성이 디자인 선호 이유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팬티 허리 밴드의 형태는 넓은 밴드, 고무줄을 끼어 넣는 밴드 형태, 좁은 밴드, 레이스 밴드 형태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허리 밴드 형태별 선호 이유를 살펴보면 미적인 면이나 내구성보다는 팬티를 착용했을 때의 허리를 조이지 않는 착용감이 가장 중요한 선호 이유로 나타났다.

넷째, 노년 여성의 현재 착용중인 팬티의 불편 부위로는 앞가랑이선, 배부위였으며, 착용감과 기능성에 있어 불만족한 사항으로 배와 엉덩이 부위의 커버력에 대한 불만족이 팬티 소재 내구성에 대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체형에 따라 노년 여성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비만집단이 수척/정상 집단에 비해 불만족이 높았지만 반면에 연령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항목은 '촉감이 좋지 않다' 항목만으로 70세 이상 집단이 60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연령보다는 체형에 따라 불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팬티 제품의 디자인이 배와 엉덩이의 비만도가 높아지고 처지는 노년 여성의 체형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디자인이 제시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노년 여성은 팬티를 구매할 때 디자인, 유행, 브랜드 보다는 소재, 맞춤새, 봉제를 선택 기준이라고 하였고, 각 브랜드별 선호 이유에 대해서도 바느질 상태, 소재, 착용감이 좋을 제품을 선호하는 것을 볼 때 이 세 가지의 요소 즉 소재, 맞춤새, 봉제 부분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 팬티 착용 시 불만족한 사항으로 가랑이, 허리 고무 밴드가 조이고, 배와 엉덩이를 감싸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팬티 착용 시 불편한 부위에 대해서도 앞가랑이선과 배, 엉덩이부위를 선택하여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년 여성은 중년 여성에 비해 배와 엉덩이의 비만도가 높아져 둘레 항목이 커지고 또한 아래로 처져 볼록한 형태가 되고 허벅지 부분은 오히려 가늘어지는 체형적 특징이 있지만 현재 시판되는 노년 여성의 팬티는 노년 여성의 체형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과 다른 사이즈 체계나 맞춤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춤새에 대해 불만족이 높다. 그러므로 노년 여성을 위한 신체 적합성이 우수한

체형의 특성을 반영한 팬티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노년 여성 125명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수를 확대하고 거주 분포를 고르게 표집해야 하며,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노인 여성의 생리적, 체형의 특성을 반영한 노년 여성을 위한 팬티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서영희, 정삼호 (2008). 노년기 여성의 팬티와 브래지어 구매행동 연구 및 시판 브래지어 착의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2(7), 1013-1022.
- 석혜정 (2010). 연령과 비만에 따른 성인 여성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의 선호 조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4), 75-88.
- 석혜정, 한승희 (2010). 실버세대의 여성을 위한 의복 디자인개발. 『복식』, 61(1), 47-57.
- 유희숙 (1999). 「노년 여성의 체형별 의복 치수와 그레이딩 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소영 (2004). 60대 노년 여성의 체간부 체형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8(11), 1426-1437.
- 이효진, 김주연 (2005). 노년기 여성의 팬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 전북지역 거주 노년기 여성의 팬티 선호경향 및 구매요인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3(4), 598-599.
- 이효진, 김진 (2006). 노년 여성 표준 체형의 팬티 원형 개발 연구. 『복식문화연구』, 14(4), 864-875.
- 이효진, 김진 (2007a). 노년 여성의 팬티 치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2), 181-182.
- 이효진, 김진 (2007b). 노년 여성의 기능성 팬티 패턴 개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5), 737-748.
- 이영주, 김점해 (2007). 노인여성의 의복행동과 기성복 맞춤새.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123-135.
- 장안화 (2005). 실버패션디자인 연구 - 노년여성의 의복디자인선호도를 중심으로: 텔파이법의 적용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6), 577-584.
- 정삼호 (2009). 시니어세대의 연령에 따른 실내복 디자인 선호도 및 구매행동 연구 -50대 이상 중, 노년 여성을 중심으로-. 『복식』, 59(4), 143-154.
- 조진숙, 최진희, 허은영 (2001). 노인여성을 위한 요실금 팬티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856-867.